

2010년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대전 MBC

2010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1. 회의 개최

가. 일시 : 2010년 3월 24일(수) 17:00

나. 장소 : 대전MBC 대회의실

다. 참석자 (총 - 18명)

* 시청자위원 : 10명 중 9명 (송용호 위원장, 김영광 부위원장, 윤태권 위원, 김제선 위원, 정윤모 위원, 정순진 위원, 김재성 위원, 이승선 위원, 김경숙 위원)

- 불참 : 여운철 위원

* 대전 M B C : 9명 (고대석 사장, 강덕원 인프라본부장, 박선자 방송본부장, 박재현 디지털센터장, 김미리 편성제작센터장, 서영석 뉴스센터장, 정문영 영상센터장, 이상현 전략기획실장, 김윤미 전략기획실 사원)

2. 심의 결과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사항

단위 : 건

방송편성	방송프로그램 내용					자체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9	9	2	2	22		22

나. 기타사항

- 시청자 평가원 선임 : 해당사항 없음
-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해당사항 없음

3. 제시 의견 활용 실적

제시 의견	활용 실적	비고
총 19건	총 10건	
엑스포공원 재창조 제안접수 기간이 당초 90일에서 120일로 갑자기 연장됐다.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용역 결과도 비공개되는 등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정책이 아예 결정조차 유보되는 경우 많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 필요해 보인다.	- 집중 토론이나 기획 보도로 꾸준히 보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획뉴스 준비 중이나, 도시철도 2호선 용역 결과와 엑스포 재창조 등은 현 자치단체장의 성과 점검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상대 후보들의 선거 전략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2010년 2월 제시의견
지방선거 앞두고 기관장 동정 등의 보도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 달라. 또, 선거 후보 검증에 필요한 조치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 편성제작 분야의 경우 공정선거방송을 위한 제작 지침을 숙지하고 신중히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선출직 공무원의 동정 보도는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보도하지 않음.	"
홈페이지가 점차 개선되는 것 같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여전히 불안정하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 오는 5월 18일 전문업체에 위탁해 홈페이지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며 현재 메인 디자인 작업을 완료하고, 서버 불안정 해소를 위해 추가 서버도 구입했음.	"
미디어렐 도입 앞두고 전파료 배분 문제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 권역별 인구, 지역내 총생산 등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충남이 광주/전남, 강원보다 높지만 MBC가 1개라는 이유로 전파료 총계나 비중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사 차원에서 담당 부서인 전략기획실에서 전파료 배분 문제를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 관련 기관 등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임.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총 0 건	매월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매월 당사 홈페이지(www.tjmbc.co.kr)에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하고 있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 변동사항 없음

5. 주요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처리결과
보 도	<p>① 끝나지 않는 재앙 2부작이 미국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 수상작으로 선정되고, 하늘동네 이야기가 목요일론인상, 이달의 기자상에 이어 방송대상에서도 수상했다는 소식 들으니 좋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 경쟁력 높였으면 한다.</p>	<p>⇒끝나지 않은 재앙의 후속편인 ‘잊혀진 재앙’을 비롯해 창사특집으로 백제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 중이며 앞으로 각종 수상제와 해외 페스티벌에도 출품할 예정입니다.</p>
	<p>② 6.25에서 G20까지 기획보도와 관련해 최근 기부를 통해 사립고, 대학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방송됐는데 기획의도에 전혀 맞지 않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뉴스가치도 없다고 보여 시청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다. 6.25와 관련해 방송 시기를 6월로 조정해야 할 듯 하고, 참전국으로서의 터키를 조명하려면 60년간 터키와 우리나라 협력관계의 변화나 역사 등을 다루는 게 맞다.</p>	<p>⇒6.25에서 G20까지 기획보도는 아시아기자협회와 공동기획으로 취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캐나다, 인도 등을 추가 방문해 취재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특집으로 구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단, 지역성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p>
	<p>③ 대전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대부분 아파트 건축이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경기 상황 등이 어려워 철거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곳이 적지 않아 슬럼화 되고, 위험 요소가 내재된 경우 많은 만큼 보도를 통한 점검 필요하다.</p>	<p>⇒재개발, 재건축 관련 아이템도 자주 방송할 예정입니다.</p>
	<p>④ 태안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암 환자 발생률이 급증했다는 보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심층 취재해서 방재에 나섰던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 하늘동네도 1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후속 보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p>	<p>⇒태안 사고와 관련한 취재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늘동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영세민들의 삶을 다룬 기획보도도 준비 중입니다.</p>
	<p>⑤ 3/8일의 경우, 1960년 대전의 고교생들이 자유당 독재에 항거한 의미 있는 날이고 특히, 올해 50주년을 맞았는데 대전MBC 뉴스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지역 방송의 역할에 대해 고심해 달라.</p>	<p>⇒3.8의거는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고, 관련 기관에도 시기에 맞춰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하겠습니다.</p>

	<p>⑥ 보령 김 생산 관련 리포트 어깨걸이가 서천 김으로 방송됐고, 금강 관련 보도에서도 연기군 금남면 자막이 공주시 금남면으로 나갔다. 사소해 보이지만 신뢰의 문제인 만큼 신경 써야 한다.</p>	<p>→자막 실수는 재발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주의를 줬으며 기사 편집시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p>
<p>교 양</p>	<p>① 토론 프로그램은 일간지와 차별화된 아이템이 필요하고, 일간지 보도내용 되풀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앞서면서도 현실적인 해법 제시가 있어야 한다. 낙태 찬반 논란을 다룬 집중토론은 방송 내내 찬반 논쟁에 그치고 정부 정책 분석과 핵심 쟁점에 대한 보완책 논의 없이 끝나 아쉬웠다.</p> <p>② 무상급식 문제를 다룬 시사플러스도 현상 분석에만 그친 건 마찬가지다. 지자체 예산 분석해주고, 이에따른 정책적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전문가 인터뷰도 일반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전문가답게 심층적인 멘트를 해줘야 한다.</p> <p>③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토론회 계획 궁금하고, 진행자 선정 시 공천심사위원 포함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배제하는 등 대전MBC의 처리 방침을 알고 싶다. 선거 토론회에서 모든 선거구 후보들을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지상파 방송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기획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선거구를 다뤘으면 한다. 또, 지방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권자들의 후보를 모르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하고, 현역 프리미엄을 보는 일이 없도록 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명확히 점검해줬으면 좋겠다.</p> <p>④집중토론 의제가 지역민이 보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시청자가 불 만하고, 토론 내용 자체도 흥미진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p>	<p>→집중토론에서 정책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 섭외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피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봄 개편을 통해 관계자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지 않아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p> <p>→시사플러스가 더욱 심층취재 프로그램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전문가 인터뷰도 인터뷰 내용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방송되도록 할 예정입니다.</p> <p>→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방송은 한국공공행정학회와 함께 선거방송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출이나 출제 교수들 추천을 공공행정학회와 하기로 하고 곧 협약서도 체결할 방침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은 없도록 하기 위해 불편부당을 지향할 것입니다. 또, 라디오 프로그램 ‘시대공감’을 통해서도 꾸준히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자체 프로그램과 시.도 선관위 주최 토론회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지상파에서 편성 할애받기 쉽지 않지만 낮 방송시간도 최대한 활용해 10여 차례 토론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p> <p>→ 집중토론의 경우 섭외 문제와 항상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 매주 노력하고 있습니다.</p>

	<p>⑤ 3/5일 방송된 시사플러스의 경우 ‘자본을 쫓는 노동자들’이라는 제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내용은 투기 자본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원정 투쟁을 떠난다는 것인데 제목만 보면 자본에 휘둘리는 노동자처럼 느껴진다. 제목은 내용을 대표해야 하는데 내용과 전혀 맞질 않았다. 제목 정할 때 신중해 달라. 구성도 노동자 입장 위주였는데 사용자 입장도 동등하게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주행하는 사교육’ 방송을 보며 몰래카메라 사용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 들었다. 굳이 몰카를 쓰지 않아도 될 인터뷰에서 몰카를 사용해 오히려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낮아지는 역효과가 났다고 본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몰래카메라를 쓰도록 하고, 이와 함께 보도에서는 초상권 보호와 음성 변조 확실히 해줬으면 한다. 내용상으로도 모든 국민이 아는 내용 되풀이에 그치고 대안 모색이 전혀 없었다. 또, 진행을 맡은 이현주 변호사의 역할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 아예 진행자가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다.</p>	<p>→제목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양쪽 입장을 고려해 균형있는 취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몰카 사용도 꼭 필요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겠습니다. 초상권 문제도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반면, ENG 구성물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진행자의 역할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행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모색하겠습니다.</p>
<p>오락</p>	<p>① 타임워프 신설 초기 프로그램의 재미가 떨어진다고 혹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 프로그램이 자연스러워지고, 주제도 일상과 가까워진 덕분에 보는 재미가 더해가고 있다.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p> <p>② 타임워프 이성미 출연 방송분을 시청해보니 입담이 좋아서인지 프로그램 신설 이래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다. 보조 진행자인 폴리나도 외국인 입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 감초 역할을 해줬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거리도 다양하게 개발해 칭찬하고 싶다.</p>	<p>→회고를 주제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어서 시청자들이 다른 오락프로그램과 달리 이해하고 즐기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칭찬을 토대로 앞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p> <p>→지역에서 제작 중인 유일한 오락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용과 구성, 섭외 등 모든 분야에서 신경쓰겠습니다.</p>

<p>기타</p>	<p>① 흔히 '대.충청 방문의 해'라고 사용하는데 뜻을 알고 보니 '대전.충청 방문의 해'라고 한다. 방송에서도 대전이 포함되도록 정확하게 써 달라.</p> <p>② 대전MBC가 지역 방송 본연의 역할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주제가 지역적이어야 하고, 또 경영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제기한 전파료 문제가 빨리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 있다.</p>	<p>→축약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겠지만 대충청방문의 해는 이미 대전.충남에서 일종의 브랜드 용어로 쓰기 시작해 저희만 바꿔 사용하지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충남도 관계자들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p> <p>→전파료 문제는 현재 담당부서인 전략기획실에서 현황 파악과 함께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척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p>
-----------	--	---